

##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만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21:1-5)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종려주일’(Palm Sunday)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며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는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21:6-11)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뒤에서 시편 118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그들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원어로 된 25절의 첫 단어,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편 118:25-26). 이렇게 그들은 구원의 주를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적합한 말씀이며 외침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날이었습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21:12-13)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매매하는 자들은 로마돈을 성전에 바치는 세겔 주화로 바꾸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주화는 성전에 바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화폐였던 세겔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그곳에 상주하면서 편의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를 성전화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성전 화폐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둘기는 길거리에 나가면 약 이삼 백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내에서 파는 비둘기는 제사장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에 사 천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제사장들에 의해 인정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사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비둘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의 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하나님께 흠있는 것이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부터 간교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21: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물품을 사라고 외치거나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곳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대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21:15-17)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지 않고 베다니에 가서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해하였고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서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21:18-22)

주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는, 즉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좇아가는 사람은 자신보다 주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즉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캐딜락이나 벤츠 자동차를 구하더라도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심판하시는 데에 쓰신 최초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축복하고 고치고 도와주시는 데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몽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분이 심판하시는 능력을 처음 쓰신 일이었으며 이것은 제자들을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가 참으로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사월, 즉 유월절로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기에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화과나무에는 조기열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월에 그곳에 가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는 없고 큰 무화과 열매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첫번째로 익은 열매’라고 부른답니다. 심지어 늦은 2월에도 아주 잘 익은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삼월 하순이나 사월이 되어야 비로소 잎사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길러 본 분은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첫번째로 익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며, 이 무화과나무에서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상징하여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무화과 열매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담긴 바구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가 담긴 바구니는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집니다. 요엘서와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저주받아 시들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21:23)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다음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21:24-27)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당연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내어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울무에 걸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21:28 -32)

물론 이 비유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싫소이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 돌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나아와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라고 대답한 자들이었으나, 가지 않고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간 자나 아니면 가졌다 했으나 가지 않은 자냐는 말씀입니다.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겉치레만 하는 종교적 의식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등 겉치레적인 행동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하게 상한 감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정적인

표현을 원치 않으시며,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겉치레는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21:33)

이 비유는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짜는 술틀을 파는 등의 묘사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만 맺히자 그 포도원 담을 헐어내고 포도원을 황무케 했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출지니이다”(21:34-41)

그들은 또 한번 자승자박을 하고만 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외쳤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더라”(21:43-46)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일은 속히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이 거부함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한복음 15:1-4)

그러므로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케 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구원의 주요 주님으로서 섬기는 관계냐, 아니면 심판자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느냐 입니다. 회개하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물론 깨어지겠지만 새롭고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자는 심판자로 그분을 맞게 됩니다. 즉 가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